

#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개 및 관람 안내

박물관 기본 정보	
주소	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(세종로 82-1)
연락처	대표번호 02-3703-9200
홈페이지	www.much.go.kr
입장료	무료
이용시간	화~일 9:00~18:00 / 수, 토 9:00~21:00(야간개장),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(월요일, 1월 1일 휴관 ※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)
오시는 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하철: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/ 안국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</li> <li>버 스: 세종문화회관 / KT광화문지사 / 경복궁 정류장 하차</li> </ul>
주차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차: 박물관 옆 버스 하차장</li> <li>주차: 광화문 열린마당 주차장(2시간이내 2천원) 경복궁내 주차장(2시간이내 4천원)</li> </ul>
인근 관광지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복궁: 도보 3분 이내</li> <li>국립민속박물관: 도보 10분 이내</li> <li>국립현대미술관: 도보 7분 이내</li> </ul>



박물관 8층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광화문

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항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승하고, 국민들의 자긍심과 염원을 모아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역사문화공간입니다.



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경

## 전시 및 단체 해설 안내

상설전시실  
(3~5층)

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4개의 전시실 구성

- 상설전시실1 : 대한민국의 태동 (1876년~1945년)
- 상설전시실2 :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(1945년~1961년)
- 상설전시실3 :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(1961년~1987년)
- 상설전시실4 : 대한민국의 선진화, 세계로의 도약 (1987년~현재)

### 진행 전시

### 다음 전시

기획전시  
(3층)

<일하는 해 1966>

2016.7.19.~8.28.

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 
1966년 한국과 한국인의 역동적인  
모습을 반추하는 전시



<미평화봉사단 한국활동, 1966~1981>

2016.9.13.~11.20.

미평화봉사단의 창설배경과 미국의 외교정책,  
평화봉사단의 선발부터 훈련과정 및 활동,  
평화봉사단원이 바라본 한국의 변화상 및  
단원들의 생활상 등을 전시

전시 해설

[정기 해설] 화~일, 1일 5회 운영 ※예약 없이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시작

오전 10:00 / 11:00 / 오후 2:00 / 3:00 / 4:00 / 7:00(수, 토 야간개장 시)

[단체 예약 해설]

- 대상: 20명 이상 단체
- 방법: 방문을 원하는 날짜 3일 전까지 전화 예약  
※휴관일(월요일)에는 전화 예약 불가

◦ 소요시간: 약 50분 ~ 1시간

- 예약 해설은 상설전시실에 한하며,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- 예약된 시간에서 15분 이상 지각 시 해설이 취소될 수 있음
- 예약 및 문의: [교류홍보과 02-3703-9252](tel:02-3703-9252)



△ 상설전시실1 대한민국의 태동



△ 상설전시실2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



△ 상설전시실3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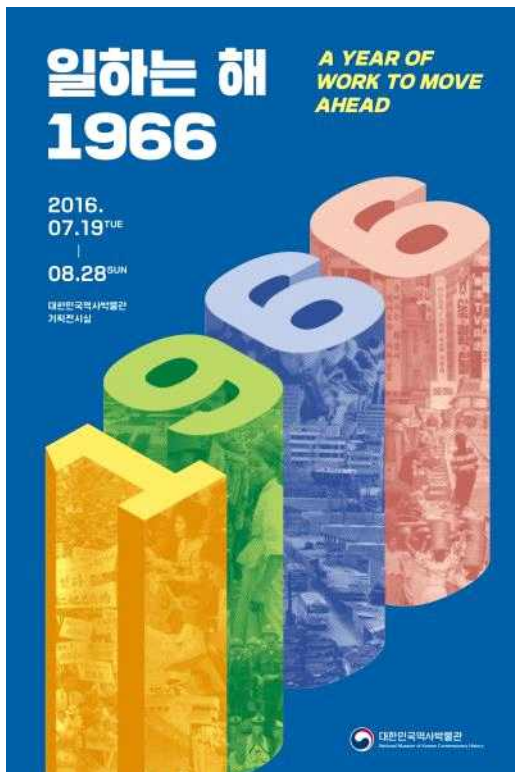


△ 상설전시실4 대한민국의 선진화, 세계로의 도약

## 특별전 <일하는 해 1966> 소개

### 특별전 개요

- 제 목: 일하는 해 1966 (A Year of Work to Move Ahead)
- 기 간: 2016.7.19.(화)~8.28(일)
- 장 소: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
- 내 용: 반세기 전 1966년을 중심으로, 1960년 중후반 한국과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돌아보는 전시
- 전시물: 관련자료 500여 점, 사진, 음원, 영상 100여 점
- 관람료: 무료



한국의 1966년은 여느 해 못지않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동서냉전(東西冷戰)의 대립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한 가운데 최초로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이 있었고, 많은 군인과 기술자가 베트남으로 향했으며 한국 최초의 복싱 세계 챔피언이 나왔습니다. 또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울려 퍼졌으며, 베이비부머(baby boomer) 세대가 초등학교의 교실을 가득 메웠고 훗날의 대표적 수학 참고서와 문예 비평지가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. 이렇게 50년 전 한국의 각계각층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당대 사람들의 도전과 환희, 일하고자 했던 열정, 시련과 희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<일하는 해 1966>은 '일하는 해'라는 기치 아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 하며,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해 노력했던 1960년대 중후반의 한국과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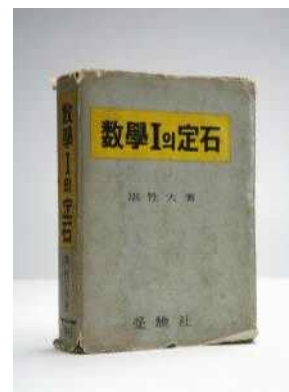
### 주요 전시 자료



김기수 선수 사용 글러브  
(1966)  
김기수 기념사업회 소장



가족계획 포스터  
(1966)



수학 I의 정석  
(1966)  
경희대학교/성지출판 소장